



오늘의 날씨 | 비 | 기온 22℃/32℃

2017년 6월 29일 목요일 (음력 5월 29일)

www.christiandaily.co.kr

제 837호



구독신청 02-722-8165

기독일보

석간



“UN, 탈동성애자 인권도 보호하라”

“UN은 동성애자들보다 더 소수자인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라”며 ‘제1차 탈동성애인권 전세계 동시캠페인’이 시작됐다. 이를 위한 집회가 28일 오후 2시 한국에서는 명동 유네스코 앞에서 있었으며, 각국 UN사무소 또는 거주도시 랜드마크 앞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특히 28일은 1969년 스톤월 항쟁일로, 동성애 축제의 기원일이기도 하다. ▶관련성명4면

선민네트웍

“복음적 통일, 오로지 자유민주주의체제로만이...”

‘월버포스 통일 컨퍼런스’에서 월버포스 아카데미 대표 이태희 목사 강연

월버포스 아카데미(대표 이태희 목사)가 지난 26~28일 저녁 7시 30분 유나이티드아트리움에서 ‘월버포스 통일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이태희 목사(그안에진리교회)가 직접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이 통일이라는 사실을 증거 해냈다.



월버포스 아카데미 대표 이태희 목사

먼저 이태희牧사는 “대한민국 건국은 혁명적 사건”이라 말하고,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라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치 체제가 세워졌다”며 “공산주의 물결을 낡은 땅에서라도 지켜내기 위해서 단독 정부가 수립된 것”이라 했다. 그는 이것이 “시작은 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 설명하고, “얼마 전 6.25 기념일이었는데, 이 6.25는 체제수호전쟁으로, 다행히 승리하고 체제를 수호해 낸 것이 6.25”라며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는 통일한국은 자유민주주의체

제로의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목사는 “성경적 역사관으로 세상을 보고 통일 문제도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역사가 ‘복음적 통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 말하고,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 대한민국 땅 안에 건국 섬리를 일으킨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섬리의 방향을 알고 그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목사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강조했다. 그는 “과거 조선왕조체제에서 식민체제로, 그리고 해방 이후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바로 넘어갔는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업적은 이 자유민주주의체제라는 기차를 선로 위에 얹어 놓은 것”이라 표현하고, “물론 그 스스로의 과오가 있어 자신이 이루어 놓은 체제로 말미암아 몰락하게 되었지만, 그가 세운 자유민주주의체제라는 것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의 업적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목사는 “하나님께서 왜 이승만이란 인물을 우여곡절 끝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세우시고, 왜 제헌국회에서 목사가 기도해 이 국가를 시작하셨는

지, 왜 그렇게 급하게 단독정부를 수립하게 하셨는지 등의 이유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라며 “이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의 건국혁명을 우리가 이어 완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사명을 “복음적 통일”이라 말하고 싶으며 성경적 세계관을 기초로 한 통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통한 통일한국이 바로 ‘복음적 통일’의 목적이란 이야기 했다.

이 목사가 말하는 ‘복음적 통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는 먼저 “복음이 확신될 수 있는 정치 체제로의 통일이 복음적 통일”이라 복음적 통일이라 주장했다. 사상과 비판,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체제가 그 답이란 이야기인데, 그는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면서 “(흔히들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단순히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라고 했다. 때문에 그는 “선조로부터 이어 받은 시대적 사명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말하고, 그것이 복음적 통일의 의미라며 “오로지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체제로만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이 목사는 “하나님께 의해 이뤄지는 통일이 복음적 통일이다”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뤄지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음적 통일이란 죽음의 영이 다스리는 땅에서 죽음의 영을 내쫓는 것인데, 이것은 기도로만 가능하다”면서 “곳곳에서 (이러한 통일 기도회가) 이뤄지고 있어 감사한데, 오로지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마지막으로 이 목사는 “기독교적 정신에 토대를 둔 통일,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분에서 그는 개인적인 간증도 전했다. 이 목사는 98년 통일에 대한 사명을 얻었는데, 이후 고민을 하다가 “사상적인 면에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안에서 먼저 부흥을 경험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 다”면서 자신이 교회를 개척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진정한 교회 부흥이 통일로 이어지는 것”이라 말하고, “그러한 교회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 된다”며 “진정한 회개를 통해 임하는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차고 넘칠 때, 진정한 복음 통일은 이뤄질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26일 문창극장로(전 중앙일보 주필)가 “대한민국의 역사읽기”란 제목으로 강연을 전했으며, 27일에는 박상봉 박사(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가 “통일은 기억, 기록은 하나님의 일”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전하기도 했다.

박용국 기자

“대안교육 진흥을 위한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주관으로 ‘대안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최근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대안교육이 활발하게 활성화 됐지만, 대안교육 역시 어려운 점은 많다. 이를 극복하고자 28일 낮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대안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 박현수 교장(별무리학교, 기독교대안학교연맹 법제팀장)은 이 자리에서 발제를 통해 “대안교육 진흥을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현수 교장은 먼저 대안교육 현장의 소리가 어떠한 것인지 알려졌다. 그는 “지금 대안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현장의 고민은 대안교육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공공성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라 말하고, “미인가 대안학교가 지금은 500여 개는 족히 되리라 본다”며 “반면 대안학교 설립규정을 계속 완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인가를 받은 사립 대안학교는 22개교(5% 미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장은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다 해도 계속해서 인가를 받지 않겠다는 목소리와 인가를 받고 싶으나 인가를 받지 위한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함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인가를 받고 싶지만 시설과 교육과정 운영, 인가 권자의 과도한 권한 남용, 교사의 선발 기준 등 인가 문턱이 여전히 높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고, 또 ▶대안교육의 자율성을 지켜야 한다 ▶대안교육 운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한다 등의 이유로 인가 요건이 아무리 낮아져도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제도권으로 합류되는 인가는 받고 싶지 않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보도자료(2015.5.12)에 의하면 매년 5만 여명의 학업중단 학생이 발생하고 있다. 2010년에서 부터 5년간 누적인원이 28만 명이라고 한다. 박 교장은 “공교육을 떠나 있는 학생이 이와 같은데도 아직 이들에 관한 관심이 많지 않다”고 지적하고, “청소년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 여가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을 시작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했다.

그러나 그는 “학교 밖 청소년 모두를 학교에서 부적절한 학생, 중도 탈락한 학생 등의 시각에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아이들을 관리의 대상으로만 보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공교육에서든 학교 밖에서든 대안교육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학생들의 필요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을 지원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진흥에 대해 이야기 할 시점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 교장은 “대안교육 진흥을 위해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대안교육 진흥을 위한 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 법 안에 ▶각종학교로서의 인가대신 대안교육기관 등록제가 필요 ▶독립성이 보장된 대안교육기관 설립 운영 위원회의 설치 ▶대안교육 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규정이 필요하다 ▶학교 밖 뿐만 아니라 제도권 교육에서도 대안교육 활동이 장려되어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장은 마지막으로 “현재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그동안 해온 노력에 대한 인정을 받기는 고사하고 대안교육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정부로부터 어떤 보호나 지원도 받을 자격이 없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이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이 있으니 자격을 구비하여 모두 제도권으로 들어오도록 강요할 것이 아니라 대안교육의 가치와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美 프랭클린 그래함, 文대통령 비공개로 만나 ‘한·미정상회담’ 성공 기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종교 멘토’로 알려진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빌리 그래함 전도협회 대표)를 만난 조인 선일보가 28일 보도했다.

조인선일보에 따르면, 프랭클린 그래함은 지난 21~22일 방한했으며, 청와대에서 비공개 면담을 통해 문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이 자리에서 그래함 목사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라는 기도를 문 대통령에게 해줬다고 한다. 다만 청와대 측은 만난 시간과 날짜를 알릴 수 없다고 이야기 했다.

한편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는 미국의 복음주의 지도자로 잘 알려져 있는 빌리 그래함 목사의 아들로,

그 역시 美복음주의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된 종교계 6인 대표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하다. 이번 만남은 한국교회 한 원로목사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28일 현재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는 아직 서울에 체류 중이며, 교계 유명 목회자들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국 기자

외교부-선교단체 안전간담회 “선교, 조심해서...”

외교부는 지난 27일 오후 4시 한동안 재외동포봉사대사 주재로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한 국내 선교단체 관계자 대상 안전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외에서 활동 중인 우리 선교사들의 안전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대테러센터), 국정원 관계자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등 18개 선교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 대사는 “올해 들어 중국, 파키스탄 등에서 활동 중인 우리국민들이 현지법 위반 혐의로 현지당국에 의해 조사를 받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IS

가 국가를 잠정한지 3주기가 되는 6월 29일 전후로 선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테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등 우리 선교사들에 대한 위협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안전한 선교활동을 위해 선교사들 스스로의 안전의식 고취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지적했다.

이어 한 대사는 ▶선교활동 시 현지법과 현지관습을 존중하고 ▶현지 공관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위기상황 대응체제를 마련해야 하며 ▶단기 선교 인력을 파견하기 전에 피파견자들에게 해당 국가의 안전정보와 현지 선교 관련 법률

및 지역사회의 관습 등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충분한 교육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그는 ▶해외 선교계획을 수립 시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해외안전여행정보를 참고하고,

불가피하게 위험지역을 방문하게 될 경우에는 방문지 소재 우리 공관에 연락처와 방문 기간을 사전에 알려 위기 시 신속한 공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약 2만 7천명의 우리 선교사가 해외에서 활동 중이다. 특

히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단기선교단 및 성지순례객 약 4만 5천명 이상 추정)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외교부는 다양한 운·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국가별 로밍문자 발송 ▶지하철 및 육교전광판 광고 ▶YTN 해외안전여행 특별방송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와 SNS(https://www.facebook.com/4ursafetravel) 공지 등 선교활동 관련 안전 유의사항을 전파하고,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서도 위험지역에서 선교활동 중인 우리 선교사들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해 비상연락망 구축 등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은혜 기자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마22:37-40, 요21:15-17)

제가 일년에 두 번씩 광야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설교를 합니다. 작년 2016년 2월 28일 주일에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10월 23일 주일에는 “병든 자들, 죄인들, 상처받은 자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오늘 2017년 6월 25일 광야교회에 다시 와서 “주님 사랑, 교회사랑, 이웃사랑, 자연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평생을 살아오면서 깨닫고 또 깨달은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축복된 일은 사랑을 하면서 사는 사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두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22:37-40).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분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요13:34).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여섯 제자들을 만나서 부탁하신 말씀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피를 흘려서 사시고 세우신 교회와 양무리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도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들의



강변교회 김명혁 원로 목사

백합화와 들의 풀들을 임하시는 자연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 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나”(마6:26-30). 그러면 이제부터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첫째로, 주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주님 사랑보다 더 귀중하고 더 아름답고 더 축복된 것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호소하시면서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질문하시고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왜 별래와 같고 만물의 찌기와 같은 우리 죄인들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지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아마 별래와 같고 만물의 찌기와 같은 우리 죄인들을 무조건 일방적으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쓰레기였던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 사랑에 녹아져서 맨날 울면서 지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여인은 주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 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눅 7:38)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의 사랑함이 많을이라”(눅7:47).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눅8:1-3에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

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열 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눅8:1-3). 우리 찬송가도 이렇게 찬송합니다. “값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 받아서 향기론 산 제물 주께 바치라”(창 34:6). 십자가 아래서 울면서 주님께 대한 사랑을 눈물로 쏟아냈던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고 주일 새벽 미명에 무덤으로 달려가서 울면서 주님께 대한 사랑을 눈물로 토해냈던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요19:25).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요 20:1,11).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사랑에 녹아져서 자나 깨나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만 중얼거리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사용하는 대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사람”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요 13:23).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요20:2, 21:7).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지극하게 받았고 예수님을 지극하게 사랑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이란 말을 30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 요한을 지극히 사랑하시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을 가리키며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요19:26).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도 요한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사랑에 녹아져서 예수님 사랑에 미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찌어다”(고전16:22).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빌1:20,21).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고후12:10).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도 바울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자신보다 세상보다 부귀 영화나 성공이나 명예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고, 성 프랜시스와 주기철 목사님과 이성봉 목사님과 손암원 목사님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사랑에 녹아졌던 사람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딤후3:1-4). 우리들이 앞으로의 남은 생애에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면서 살도록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주님 사랑과 함께 교회 사랑보다 더 귀중하고 더 아름답고 더 축복된 것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사시고 세우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마16:18).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였느니라”(행20:28). “교회는 그의 몸이니”(엡1:23).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1:24). 교회는 나무와 돌로 지은 집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

려서 사시고 세우신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찬24:6).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보통 집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사시고 세우신 집입니다. 교회보다 더 귀중하고 더 거룩하고 더 축복된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부탁하신 말씀 중의 한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내 어린 양”은 주님께서 피를 흘려서 사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려서 사신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양 무리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치는 일보다 더 귀중하고 더 축복된 일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양 무리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치는 목자가 되었고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을 따라 예루살렘교회의 신자들은 주님의 교회를 자기 집보다 자기 일터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은 교회를 사랑하며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행2:46).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은 교회를 사랑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전히 힘썼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를 전히 힘쓰니라”(행2:42).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은 교회를 사랑하며 서로 교제하기를 전히 힘썼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기를 전히 힘쓰니라”(행2:42).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은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전히 힘썼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기를 전히 힘쓰니라”(행2:42).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교회를 사랑하며 사랑과 구제와 봉사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행2:44,45). 주님의 교회를 자기 집보다 자기 직장보다 더 사랑하는 일보다 더 귀중하고 더 축복된 일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며 사모했는데 저들을 위해서 자기의 피를 쏟아 제사를 드려도 자기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니라”(빌1:8).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재로 드림찌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빌2:17).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도 너무나 사랑했는데 저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물과 생명을 다 바쳐도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기록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사장/발행인 김광수	일반판국장 장세규	교계판국장 김규진
------------	-----------	-----------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광고 및 구독문의 070-4352-2480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대표구좌 SC은행 130-20-571787
구독신청 우리은행 1005-301-884992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 1개월 15,000원

미주 기록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록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My KIDS

지구촌 어딘가에 있을 나와 꼭 닮은 아동을 찾아보세요!
그 아이의 꿈과 희망을 나의 손 끝으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MY KIDS 참여방법!

- 1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 2 모바일 앱 mykids.vv.or.kr도 접속해주세요.

월드비전 참여하기

- 1 월드비전 Family Card와 함께 하물 필요! 관련 카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2 하물과 전서로 교환하여 선물을 보내거나 미물이나 서는 지면을 방문하여 하물의 교환과 교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연 1회 미물교환을 받기 위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후원금을 후원하기

- 1 월 1만원에서 후원금은 지출내역서를 통해 어떻게 후원, 노선, 차수, 고지 및 미물교환 여부를 확인합니다.
- 2 후원후 받은 한 아이의 미소만큼 나의 손을 가꾸고 큰 미래를 꿈꿉니다.

홈페이지 www.worldvision.or.kr 후원 문의 및 신청 02-2078-7000

허비하리나”(고후12:15).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도 너무나 사랑하며 보고 싶어했는데 저들이 자기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고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이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열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살전2:17).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살전2:19,20).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사랑에 미친 사람이었고 교회 사랑에 미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로마에 가서 순교의 피를 흘리므로 악의 중실부인 로마에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서 사신 교회와 양 무리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의 제물이 되는 것보다 더 귀중하고 더 아름다운 일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인 길전주 목사님, 이기종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들은 자기 자신들보다 자기의 부모 처자들보다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양 무리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자기 집이나 가정보다 주님의 교회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거지와 같은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문 하나를 읽어드립니다. “주여 애양원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애양원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들을 사랑하신 같은 사랑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는 이들을 사랑하되 나의 부모와 형제와 처자보다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내 몸이 저들과 같이 추한 지경에 빠질지라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약 저들이 나를 싫어하여 나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저들을 참으로 사랑하여 종말까지 싫어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 하으나 인위적 사랑, 인간적 사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보다는 더 사랑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또한 세상의 무슨 명예심으로 사랑하거나 말세의 무슨 상급을 위하여 사랑하는 욕망적 사랑도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내용에서 되는 사랑으로서 이 불쌍한 영육들만을 위한 단순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의 남은 생이 몇 해 일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몸과 팔 주께 맡긴 그대로 이 애양원을 위하여 충심으로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피 흘려서 사신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양 무리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보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와 양 무리들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일보다 더 귀중하고 더 아름다운 일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고 또 부족한 죄인이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 교회를 너무나무 좋아했고 주님과 교회를 너무나무 사랑했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좋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주일에도 교회에 가지 못하게 했고 학교에 오라고 했지만 저는 주일 날 한 번도 학교에 가지 않고 교회에 가서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월요일마다 학교에서 벌을 받았고 때로는 정학을 당했지만 저는 주일날엔 학교에 가지 않고 교회와 와서 종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국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저는 11살 때 고향과 부모님을 떠나 38선을 혼자 뛰어넘어서 남쪽으로 왔습니다. 고향과 부모님을 떠나 슬픔과 아픔을 지니고 한 평생을 고아와 나그네로 살았지만 남한에 와서 주일 날 종일 교회에 가서 주님께 예배 드리며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무 좋았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때는 대교로 피난을 가서 3년 동안 중학생 시절을 보냈는데 그 3년 동안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았고 주일에는 종일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면서 자랐고 수요일 저녁 예배에도 빠지지 않았고 이성봉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부흥회에 12번은 참석하면서 값은 은혜를 받은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과 대학생 시절에는 서울에 있는 창동교회에 다녔는데 담임 목사님이신 김치선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주일 아침과 저녁과 수요일 저녁은 물론 새벽기도회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과 예배와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 성수를 철저히 했는데 주일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 가지 않고 종일 교회에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의 일과 고등부 총무의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김치선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부흥회는 삼각산이든 관악산이든 어디든지 따라다녔는데 대교 주안산까지 따라다녔습니다. 대교 주안산 부흥회 어느 시간에 찬송가 246장을 불렀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저는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라는 가사가 저를 울리니 찬송을 부르다 말고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라는 가사가 저를 울리고 말았습니다.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우니가 옆에 있던 어느 어른이 “학생 무슨 슬픈 일이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도 못 하고 한 동안 계속해서 울기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귀한 교회를 늘 사랑하여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무조건 왕십리로 갔습니다. 김치선 목사님께서 2만 8천여 동네에 우물을 파게 해 달라고 매일 기도하셨는데 저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왕십리에 우물을 파기 위해서였습니다. 토요일과 주일마다 왕십리 들란에 나가서 서울고등학교 학생의 교복을 입고 찬송을 부르며 아이들을 불러모았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도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구해다가 천막을 치고 왕십리에 가서 철없이 단순하게 개척 모회를 했는데 이 모두가 김치선 목사님으로부터 물려 받은 기도와 전도와 교회 사랑의 영적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일보다 더 귀중하고 더 아름답고 더 축복된 것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12년 동안의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귀국해서 후암교회에서 5년 동안, 영안교회에서 일년 동안 그리고 강변교회를 세워서 28년 동안 모회를 했는데 저의 모든 정성을 쏟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모회를 했습니다. 강변교회를 건축할 때는 제가 두 번째로 건축헌금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다가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바치는 일보다 더 귀중하고 더 아름답고 더 축복된 일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라 선교사가 했고 주기철 목사님과 이성봉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도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을 따라서 우리들의 집보다 우리들의 일터보다 우리들의 재산보다 우리들의 부귀나 영화보다 우리들의 생명보다 주님께서 피 흘려서 사신 주님의 교회와 양 무리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다가 죽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한 제물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제물 되는 죽음을 죽게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 사랑을 힘쓰면서 사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22:37-40). 그리고 새 계명을 주시면서 그것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 여기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이웃은 가족이나 친척이나 동족에 국한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 이방인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원수와 핍박자들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인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마5:43-45).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편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시면서 우리들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눅10:37).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문둥병자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셨고, 로마 백부장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셨고, 열병 환자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셨고, 눈먼 소경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셨고, 모든 종류의 병자들과 죄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셨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악약한 로마 군인들에게도 사랑의 손길을 펴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간 강도에게도 사랑의 손길을 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불쌍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펴는 것이 천국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25:40). “저희는 영생에 들어가리라”(마 25:46).

저는 본래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사람이었고 보수적인 사람이었고 비판적이고 배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와 다른 입장에 선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을 북한 사람들과 모슬렘들과 타 종교인들을 좋아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조금씩 바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며 사랑하게 되었고,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동족으로 받아드리면서 사랑의 손길을 펴게 되었고, 어려움에 처한 모슬렘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와 방글라데시와 북한과 중국과 아

프카니스탄을 찾아 다니면서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 프랜시스와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사랑하고 싶으라” 라고 중얼거리게도 되었습니다. 이웃 사랑보다 더 귀중하고 더 아름답고 더 축복된 것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들보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분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이웃을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면서 살다가 죽게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자연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만 사랑하시지 않고 자연 만물을 세밀하게 섭리하시며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셈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나”(시104:10-15).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시147:8,9). 구약 성경은 자연의 위치를 매우 높게 자리매김했습니다. 자연을 마치 사람들처럼 말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살아있는 존재들로 묘사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은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시19:1-4).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이 찬양할찌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찌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와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시매 지음을 받았음이라도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폐지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이 다 여호와와 이름을 찬양할찌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 심이로다”(시48:3-13). 성 프랜시스는 온갖 짐승들과 새들을 향해 형제 자매라고 불렀고 해와 달과 별들까지도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자연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을 발미로 자연을 확대하고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물과 식물과 공기와 물과 흙을 아프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투처럼 시련 기자

들처럼, 예수님처럼, 요나단 에드워즈처럼, 윌리암 윌즈윅처럼, 환경적 목사님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며 자연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제가6년 전 2011년 7월 18일에 “동물 사랑, 식물 사랑, 자연 사랑, 사람 사랑”이란 제목의 글을 쓴 일이 있는데 그 글의 일부를 읽어드리므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동물과 식물과 자연과 사람을 조금씩, 조금씩 사랑하며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이곳 저곳에서 개들을 만나면 가까이 가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먹을 것을 주곤 했다. 물론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다음 언제나 남은 음식을 비닐 봉지에 싸 가지고 다니다가 길가나 집 근처에서 만나는 개들에게 다가가서 먹을 것을 주곤 했다. 내가 만난 개들은 그들의 배경이나 신분이나 모양이나 성격과 상관 없이 내가 다가가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먹을 것을 주면 곧 부드러워져서 반가움을 표시하며 먹을 것을 받아 먹곤 했다. 좀 사나운 개들도 있다. 그러나 곧 태도가 바뀌어진다. 요사이 한국에는 전처럼 길가나 집 근처에서 개들을 많이 만날 수는 없지만 중국 연변 지역에는 지금도 개들이 길 거리와 집 근처에 많이 있다. 내가 거의 매년 연변지역을 방문하여 고아 아이들을 돌아보곤 하는데 그곳에서 만나는 개들에게도 음식을 주곤 했다. 나는 훈춘의 어느 농장의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식탁에 놓여있는 남은 음식들을 봉지에 싸 가지고 농장 이곳 저곳에 있는 크고 작은 개들에게 나누어준 일이 있었다. 그 개들이 내가 다시 지나가면 나를 바라보면서 더 달라는 애라는 모습과 소리를 나타내 보이기도 했다.

“개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요사이 한국에는 전처럼 길 거리나 집 근처에서 개들을 많이 만날 수는 없지만 그 대신 길 거리나 집 근처에서 고양이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식당에서 싸 가지고 나온 남은 음식들이 자연히 개들에게서 고양이에게로 옮겨 가게 되었다. 고양이는 개와는 좀 다른 동물이라 쓰다듬어 주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모두를 경계하는 좀 예민한 동물이라는 하다. 그러나 먹을 것을 주면 아주 좋아한다. 달려 들면서까지 때로는 소리를 지르면서까지 먹을 것을 달라고 조르기도 한다. 수지 집 앞에 조그만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사는 고양이들 대 여섯 마리가 있다. 내가 언제부터인가 고양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시작했는데 내가 외출했다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 차 소리를 알아듣고 고양이들이 달려온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닐 봉지에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똑똑한 금융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싸 가지고 온 고기나 생선 남은 것들을 고양이들에게 던져주면 모두 달려들어 맛있게 먹는다. 음식 남은 것들이 없을 때는 차 트렁크 속에 넣고 다니는 참치 캔을 뜯어서 던져주곤 하는데 고양이들은 참치를 그 무엇보다 제일 좋아한다.

“개들과 고양이들은 아니다. 나는 이곳 저곳을 다니며 새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곤 하는데 새들도 먹이를 주는 나에게 달려 든다. 남아공의 높은 산에서도 모스크바의 호텔 근처 나무숲에서도 제주도의 숲 길에서도 서해 바다의 뱃길에서도 부산의 해운대 해변에서도 아니 수서 사무실 근처에서도 새우깡 같은 새들의 먹이를 던져주면 새들이 떼를 지어 나에게 달려든다. 해운대 해변에 갈 때마다 새우깡을 몇 봉지씩 사서 해변의 갈매기와 비둘기들에게 던져주곤 하는데 해변의 갈매기와 비둘기들이 떼를 지어 나에게 달려들곤 한다. 해변의 비둘기들 두 세 마리가 아예 새우깡을 던져주는 내 팔 위에 함께 올라 앉아서 새우깡을 받아 먹곤 한다. 그러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내 팔 위에 앉아서 새우깡을 받아 먹는 두 세 마리의 새들을 구경한다. 수서 사무실 근처의 고층 빌딩에 비둘기들이 머물고 있는데 점심 먹은 후 이따금씩 빌딩 근처에 가서 새우깡을 주려고 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즉시 비둘기들 수 십 마리가 떼를 지어 날아온다. 그때 찍은 재미 있는 사진들이 있다.

“사람들은 물론 동물들도 자기들에게

친절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펴며 먹을 것을 주려고 하면 그것을 즉시 알아차리고 달려드는 것이다. 나는 2010년 늦은 여름에 제주도 바다에서 재미 있는 경험을 한 일이 있다. 늦은 여름이나 바다에 들어가기가 좀 서늘했지만 산과 바다를 아주 좋아하는 나는 바다에 뛰어들어 한참 수영을 하는데 손 바닥 크기의 물고기 한 마리가 내 옆으로 다가와서 내 옆에 그대로 있었다. 나는 그 물고기를 나의 두 손 안에 넣었다. 물론 물 안에서였다. 그 물고기는 내 두 손 안에서 한참 동안 조용히 있더니 옆으로 들어 늪는 것이 아닌가! 조금 후에는 마치 잠을 자는 것과 같았다. 하도 이상해서 물고기를 바다에 놓아주고 나는 해염을 쳐서 한 10미터 이상 되는 곳으로 옮겨갔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다시 내 곁으로 다가왔다. 나는 다시 그 물고기를 나의 두 손 안에 넣었다. 물론 물 안에서였다. 그 물고기는 내 두 손 안에서 한참 동안 조용히 있더니 다시 옆으로 들어 늪는 것이 아닌가! 조금 후에는 다시 잠을 자는 것과 같았다.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을 했다. “이 물고기가 지금 너무 피곤해서 이러는가?” “지금 이 물고기가 엄마를 잃은 것은 아닌가?” “지금 이 물고기가 집을 잃은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나는 그 물고기를 두 손 안에 넣은 대로 해변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해변 얇은 물에 그 물고기를 놓아주었다. 여기서 좀 쉬든지 엄마를 찾

든지 집을 찾아가라고 타일렀다. 물고기도 친절하게 대하면 그렇게 순해지는가?

“그러면 이제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나는 식물과 꽃들을 아주 좋아한다. 강변교회에서 묵히할 때는 내 사무실에 각종 식물과 꽃들이 싱싱하고 아름답게 자라고 있었고 은퇴한 후 지금 있는 수서 사무실에도 식물과 꽃들이 싱싱하고 아름답게 자라고 있다. 다른 곳에서는 잘 자라지 않는다는 란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나무와 꽃들이 내 사무실에서는 아주 싱싱하고 예쁘게 잘 자란다. 5.6개월마다 란들이 꽃을 피우기도 한다. 나무와 꽃들에게 관심과 사랑의 손길을 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강변교회 사무실에 있을 때는 꽃을 피우기가 어려운 행운 목까지 꽃을 피웠는데 그 집은 꽃 향기가 사무실 방안은 물론 사무실 주변에까지 한 주간 이상 진동했다. 나는 행운 목의 가치를 잘라서 행운 목 자녀들을 만들었고 그 행운 목 자녀들로부터 행운 목 손주들까지 만들었는데 지금 수서 사무실에 있는 행운 목은 손주 뻘이 되는 행운 목이다. 나는 산들과 바다와 자연을 아주 좋아한다. 나는 은퇴 후 주일마다 또는 주중에도 전국의 흠어져 있는 좋은 교회들을 방문하여 예배 드리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곳 저곳에 펼쳐져 있는 산들과 울창한 나무 숲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곤 했다. 충청도와 전라남도과 경상남도과 강원도와 거제도 등지에 펼쳐져 있는 산들과 울창한 나무

숲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곤 했다. 나는 가끔 바람에 몸이 흔들려 춤을 추는 울창한 나무 숲을 바라보면서 울창한 나무 숲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곤 했다. 그래서 시편 148편을 속으로 읊기도 했다(시 148:9-13).

“나는 산들과 해변을 거닐 때마다 거의 잊지 않고 하는 일이 하나 있다. 산속이나 해변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을 주워가지고 오는 일이다. 산을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제주도의 해변이나 숲 속을 걸을 때도, 서해안 외곽 마을의 산을 오르고 내릴 때도, 태국의 해변을 거닐 때도.

사할린의 숲 속을 거닐 때도, 나는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오곤 했다. 설악산 비룡 폭포를 오르고 내릴 때 쓰레기를 담은 커다란 봉지를 가지고 내려올 때마다 산 아래 삼정 주인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오늘날도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오느냐고 인사를 건네곤 했다. 제주도의 해변이나 숲 속을 거닐 때 나와 함께 동행하던 합신의 제자들도 할 수 없이 쓰레기를 주웠다. 외곽 마을의 산을 내려오면서 쓰레기를 담은 봉지를 산 아래 파출소 쓰레기통에 넣어 파출소의 경찰이 나에게 다가와서 고마워하면서 나의 이름과 직업과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했다. 나는 웃으면서 알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구 소련 선교대회

가 열린 사할린의 숲 속을 날마다 고이종표 목사님과 함께 거닐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눈 일이 있었는데 그 때도 매일 쓰레기를 주워서 가지고 내려오곤 했다. 나는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았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자연을 조금이라도 깨끗하고 아름답게 돌아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국내외의 호텔에 며칠 동안 묵을 때는 침대나 수건을 깔지도 말고 청소도 하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Do not clean” 이나 “Do not disturb”라는 꽃말을 반드시 문밖에 걸곤 한다. 사실 집에서는 침대의 이불이나 시트를 매일 갈지도 않고 수건도 매일 바꾸지도 않는다. 호텔에서 제공하는 수건들을 골고루 사용하면 삼 사일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침대의 이불이나 시트나 수건들을 매일 세탁하면 그만큼 물이 오염될 것이고 지구가 오염될 것이다.

“사랑보다 귀중한 것은 아무 것도 없음을 배우고 또 배우게 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중얼거린다. 사랑하고 싶iera. 나는 요사이 주님을 생각하면 가슴에 눈물이 흐른다. 한 평생 나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과 사랑이 어찌 그리 크고 어찌 그리 많은지! 실로 모래알보다 더 많은 주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이 나의 가슴에 눈물을 자아낸다. 사랑하고 싶iera.

주님을 사랑하고 싶iera. 나의 맘 나의 몸 나의 정신 다 쏟아 주님을 사랑하

고 싶iera. 나는 요사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에 눈물이 흐른다. 어린이들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너무너무 귀엽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성도들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 사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때도 비슷한 느낌을 가진다. 저들의 얼굴과 마음과 영혼 속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고귀한 인성과 신성의 흔적을 보기 때문이다. 저들을 모두 사랑하고 싶iera. 모슬렘도 공산주의자도 상관아 없다. 저들은 모슬렘이나 공산주의 라는 불행한 유산에 쌓여있는 가련한 영혼들이 따름이다.

사랑하고 싶iera.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iera. 나의 맘 나의 몸 나의 정신 다 쏟아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iera.”

이것이 제가6년 전인 2011년 7월 18일에 쓴 “동물 사랑, 식물 사랑, 자연 사랑, 사람 사랑” 이란 제목의 글의 일부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 이란 제목의 설교를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들의 남은 생애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기도] 또 나를 믿어라

사람의 하나님!

주님을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증언해 주옵소서. 앞길에 저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어느 것도 두렵지 않은 용기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죽이시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시는 성령님의 도움과 친절한 격려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통해 십자가의 예수를 발굽을 내거나 감옥에 가도록하는 법률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날 전 세계 곳곳에서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탈동성애자들보다 더 소수자인 탈동성애자들과 그 가족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탈동성애자들과 동성애로부터 탈출하기 몸부림치고 있는 탈동성애자향자들의 인권보호에 적극 앞장설 것을 선언합니다.

유엔과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신성한 결혼제도를 지지하는 전 세계 시민 여러분! 동성애자들의 인권만을 옹호하여 친동성애 정책을 조장하는 친동성애단체들과 국가권력들의 횡포와 인권유린 행위로부터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이 보호되기 위해서 탈동성애인권 보호정책이 전 세계에서 수립되도록 힘써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아 보내시는 예수의 영, 예수의 대리자 성령님을 더없이 지극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도록 감싸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 가운데 70명을 뽑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라 하시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도 부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으로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망설이는 이스라엘로 거친 광야 길을 계속 가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요14:1)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깊은 교제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살 곳이 많겠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저의 마음에 빛을 주시고 하늘의 생기로 돌위 주옵소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연요한 묵사는 송실대, 송의여대 교목실장과 한국기독교대학교목회장을 역임하였다. 최근 저서로 「사순절의 영성」, 「부활 성령강림」 등이 있다.

[탈동성애인권선언문]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라!

동성애문제대책국제위원회, 탈동성애국제연맹

어린 시절 성적 분별력이 없을 때 동성애 유혹에 이끌려 시작된 동성애 생활은 자신은 동성애자로 태어났다는 착각에 빠지게 하여 결국 동성애자의 삶을 선택하던가, 성적 갈등 속에서 양심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친동성애 인권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의 인권도 소중함으로 그들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보고 된 자료들에 의하면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무분별한 동성애 생활로 말미암아 발생한 심각한 폐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에이즈를 비

롯한 각종성병, 항문 괄약근 파괴와 같은 질병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 중, 성전환을 선택한 사람들 중에는 인위적 시술로 회복 불능의 치명적 상태로 파괴된 생물학적 성기능의 마비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자신의 무분별한 동성애적 생활에 환멸을 느껴 동성애 생활을 끊어내겠다는 절대 신념과 투쟁 정신을 가지고 회심한 탈동성애지향자들 중 수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로부터 탈출하여 인생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탈동성애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동성애 생활을 끊어내고 벗어나고

자 한다면 탈동성애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끊어내는 투쟁의 길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동성애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탈동성애의 투쟁이 훨씬 쉽고 보람됩니다.

40여 년 동안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의 생활로 살다가 동성애에서 탈출한 한국의 탈동성애인권단체 〈홀리라이프〉 대표 이요나 묵사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진정한 인권은 동성애로부터 탈출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는 친동성애자들의 주장만을 수용하여 성소수자 인권을 빌미로 친동성애 정책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풍조는 동성애를 탈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신념을 좌절시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어 심지어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으며, 그러한 심리적 불안은 지켜보는 가족들은 자녀들이 다시 동성애자의 삶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자들과 인연을 끊은 탈동성애지향자들은 친동성애자들에 의해 온갖

본사와 함께 읽는 철학동화-철학하는 마이

코트는 없어졌지만, 검소한 삶의 자세는 전통으로 남았어!

스콜 라이브러리 저널 선정 '2014 최고의 어린이책'

미국밖에서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장만한 코트 한 벌. 할아버지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코트를 입었어요. 낡고 헤쳐서 더 이상 못 입을 지경이 된 코트를 버렸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급제, 남은 코드로 재킷을 만들고, 또 재킷으로 조끼를 만들고, 그 조끼로 넥타이를 만들었대요.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이렇게 외쳤어요. "아무렴, 여전히 쓸 만해."

하얗고, 오래되고, 뒤통잡힌 것도 소중히 다루고, 오래 간직하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변신해요. 진정한 영혼은 내가 만들고 가꾸는 거예요. — 한때 디자이너 · 보자기 마스터 마이제

글: 마이제스틴스 | 그림: 에리카 데일리 | 원서: 이윤재 | 36쪽 | 14,900원

한국 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도서 번호: 02-754-7558 **이마주**